

귀속요인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 한국노인과 미국인인 한국노인을 중심으로 -

김 귀 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의료의 질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저하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3년 8.3%로 증가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은 14.4%으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견하며(KNSO, 2003),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문제, 역할부재문제, 소득상실문제, 사회심리적 적응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의존욕구가 높아지고 노인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선행요건으로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기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empen & Sondereren, 2002; Kempen et al., 1999).

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변인으로는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건강 및 신체적인 활동 상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애착도와 안전감, 가족생활 만족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입, 사회활동 참여정

도, 사회적지지(Kim, 2004; Ro & Kim, 1995)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들 연구들은 특정변수들과 삶의 질 간의 관계만을 연구하여 노인 삶의 질 예측이 제한적이며, 삶의 질과 같은 성취결과에 대한 원인으로서의 귀속요인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귀속이론(Attribution Theory)은 행동의 주체가, 과거 성취결과와 원인으로 인식한 주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이 다음 행동의 결정요인이라는 학설로서 원인지각이론이라고도 한다(Weiner, 1985).

Chisholm(1981)은 귀속요인을 성취행동에 대한 작간접적 확인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였으며, 노인의 삶의 질 귀속요인으로 신체적인 측면에서 건강상태, 심리적 측면에서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효능,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참여와 수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Ro & Kim, 1995). 또한 삶의 질 귀속요인을 설명함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내재성과 안정성의 차원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Major, Quinton, & Schmader, 2003), 우울은 안정성의 속성이 있고(Kim, 1990; Weiner, 1985), 자기효능은 통제가능성 차원으로 보고되었다(Hyun, 1992; Kempen & Sondereren, 2002).

귀속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에 있어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와 대처반응 이론을 바탕으로 타당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노

* 이 연구는 경희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kuikim@khu.ac.kr)

투고일 2004년 11월 30일 심사회의일 2004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6년 3월 22일

인의 삶의 질을 연구할 때 귀속이론이 상당히 유용함을 보고하였다(Kempen et al., 1999; Kempen & Sondereren, 2002).

현재, 한국인들의 미국이민은 1965년 미국 이민법 개정으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 되면서 1970년대부터 급증하여 전체 미국인구중 3%가 65세 이상의 아시아계 노인이며, 이중 한국계 노인은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ohng, Cho, Moon, & Chaung, 2000).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미국이민 한국노인들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평균연령은 한국노인은 70.15세, 미국이민 한국노인은 78.81세, 교육수준은 한국노인은 무학, 서당이 43.4%인 반면에 미국이민 한국노인은 중졸이상이 41.5%로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교육수준이 더 높은 반면, 미국이민 한국노인은 언어장애와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과 소외 등 이민 집단 고유의 적응과제가 있으며, 한국노인에 비해 건강상태도 더 나쁘게 나타나(Kim, 1999), 이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비교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1950년대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된 간호에의 문화개념 도입은 이제 간호의 중요한 분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Andrews & Boyle, 2003).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 서양지식에 근거한 전문직 간호와 대상자의 문화간의 괴리를 인식하면서 문화간호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자국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로 다른 문화권 대상자를 비교 문화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으며, 특히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의 귀속요인과 관련하여 연구된 결과는 전무한 상태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서구화경향이 각 부문에서 뚜렷해지고 있고 생활양식 및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미국이민 한국노인들의 현상은 한국노인의 미래를 진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준거집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Kim, 1999),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사회심리적 인지와 인간의 행동과 동기를 매개하는 개념인 귀속요인을 이용하여 이 요인들이 성취결과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양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귀속요인을 이용하여 이 요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에 거주하는 한국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귀속요인과 삶의 질을 비교 한다.
- 3)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 각각에 있어서 삶의 질에 대한 귀속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속요인과 삶의 질 관계를 비교 문화적으로 파악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한국가정과 미국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으로서 의식이 명료하며 사고에 일관성이 있고 국문해독이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있어서 유사집단을 표집하기 위하여 교회와 노인대학으로 국한하였으며, 한국노인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울산지역에서 실시하였고, 미국이민 한국노인은 미국으로 이민 온지 10년 이상 된 피츠버그, LA, 시카고, 워싱턴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각 지역 교회에 다니는 한국이민 수간호사 및 간호대학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연구보조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자가 보고식 설문지의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자료수집 장소는 한국, 미국 모두 지역교회와 노인대학에서 이루어졌고,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7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질문지 배부수의 결정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4개의

변수에 각 30명을 배정하고 탈락율을 고려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170부씩, 총 340부를 배부하는 것으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였으며(Polite & Hungler, 1987), 수집된 자료 중 한국노인 163명, 미국노인 151명 총 314명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귀속요인

귀속요인(Attributional cause)이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또는 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인과적 설명이나 추론으로서(Weiner, 1985), 결과에 작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내재성, 안정성, 통제가능성의 차원으로 구성된다(Kim, 1990). 본 연구에서는 귀속요인을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된 변인을 선정하여 자아존중감은 내재성과 안정성 차원으로, 우울은 불안정성의 차원, 그리고 자기효능은 통제가능성 차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도구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 또는 자기 수용감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선행연구(Ranzijn, Keeves, Luszcz, & Feather, 1998)에서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규명되었으며, 총 10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의 5개의 긍정적 문항, 5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76$ 이었다.

(2) 우울

Sheikh와 Yesavage(1986)가 노인들을 위해 개발한 간소화된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Kee(1996)가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GDSSF-K)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의 “예” “아니오”의 양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15점 만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eikh와 Yesavage(1986)가 개발한 GDS Short Form의 신뢰

도 계수는 Cronbach's $\alpha=.95$ 였으며, Kee(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71$ 이었다.

(3) 자기효능

자기효능 도구는 Sherer 등(1982)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선행 연구(Kempen et al., 1999; Kempen & Sonderen, 2002)에서 노인의 자기효능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모두 17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2) 삶의 질

노인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생활만족도이나 이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행복감, 안정감 등의 주관적인 평가에 국한되므로(Kim, 2004) 삶의 질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Ko와 Joe(1997)에 의하면, 노인의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SF-36(Short Form-36: Ware & Sherbourne, 1993)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8개영역(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감정적 역할 제한, 정신건강, 활력, 통증, 일반건강), 36개의 문항, Likert 2~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선행 연구(Jun, Kim, Park, Oh, & Hong, 2001)에서 한국노인의 삶의 질 사정에도 유용한 도구임이 제시되었으며,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다.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1)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2) 두 그룹 간 귀속요인과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요인은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ANCOVA로 분석하였다.
- 3) 두 그룹 간 귀속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비교

선행연구(Kim, 2004)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규명된 변인을 선별하여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을 비교한 결과 <Table 1>과 같다.

교육정도는 한국노인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36.2%인 반면에 미국이민 한국노인은 전문대졸 이상이 36.7%로 조사되어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었다($\chi^2=7.955$, $p=.019$). 월 용돈에 있어서도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어 한국노인은 한 달 용돈이 50만 원이하가 48.4%로 가장 많았으나, 미국이민 한국노인은 한 달 용돈이 51-100만 원인 대상자가 5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용돈쓰임새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47.502$, $p=.000$).

2.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귀속요인 및 삶의 질 차이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귀속요인 및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룹 간 특성에 차이가 있는 교육정도와 월용돈을 공분산으로 설정한 후 ANCOVA로 분석하였다.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삶의 질 귀속요인 및 삶의 질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귀속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은 미국이민 한국노인이 한국노인에 비해 더 높았으며($F=4.002$, $p=.002$), 우울은 양국 노인들에게 차이가 없는 반면($F=1.482$, $p=.220$), 자기효능은 미국이민 한국노인이 한국노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211$, $p=.000$). 삶의 질은 미국이민 한국노인이 한국노인에 비해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9.603$, $p=.000$).

3.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귀속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삶의 질 귀속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귀속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한국노인의 삶의 질 귀속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25%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기효능 변수가 더 추가됨으로서 설명력이 증가하여 27%의 설명력을 나타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N=3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Korean	Korean-American	χ^2	p
		n(%)	n(%)		
Gender	Male	67(41.1)	66(43.7)	.218	.362
	Female	96(58.9)	85(56.3)		
Age(yrs.)	≤74	86(52.7)	67(44.0)	2.945	.054
	≥75	77(47.3)	84(56.0)		
Education	≤Elementary	45(27.7)	34(22.5)	7.955	.019
	Middle	25(15.3)	17(11.3)		
	High	59(36.2)	45(29.8)		
	≥College	34(20.8)	55(36.4)		
Marital status	Married	89(54.6)	77(51.0)	7.296	.063
	Remarried	23(14.1)	27(17.9)		
	Bereavement	51(31.3)	47(31.1)		
Offspring	1-2	71(44.1)	45(30.2)	9.081	.173
	3-4	53(32.9)	74(49.0)		
	≥5	37(23.0)	32(20.8)		
Pocket money (10,000 won)	≤50	79(48.4)	22(14.6)	47.502	.000
	51-100	50(30.7)	80(52.9)		
	≥101	34(20.9)	49(32.5)		
Total		163(100.0)	151(100.0)		

<Table 2> Differences of attributions and quality of life between Kore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N=314)

Characteristics	Korean (n=163)	Korean-American (n=151)	F	p
	LSM(SD)	LSM(SD)		
<Attribution factors>				
Self-esteem	27.42(4.19)	29.10(5.10)	4.002	.002
Depression	8.10(1.72)	8.27(1.71)	1.482	.220
Self-efficacy	46.70(5.88)	48.10(7.50)	6.211	.000
<Quality of Life>	84.76(12.56)	86.61±12.83	9.603	.000

Note: LSM(SD)=Least Square Means(Standard Deviation)

내었다<Table 3>.

한편,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삶의 질 귀속요인은 한국노인과는 달리 자기효능만이 삶의 질에 대하여 19%의 예측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with attributions in Korean elderly

Factors	β	R ²	F	p
Constant	39.887			
Self-Esteem	.503	.253	80506	.000
Self-Efficacy	.166	.271	44.092	.000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with attributions in Korean-American elderly

Factors	β	R ²	F	p
Constant	48.622			
Self-Efficacy	.430	.191	38.616	.000

IV. 논 의

성취과정에서 분석된 성취결과의 원인은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귀속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연구영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Rees, Ingledew, & Hardy, 2003).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귀속요인을 비교 문화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귀속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효능을 이용하여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들의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한국노인의 삶의 질 귀속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으로서 2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고,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삶의 질 귀속요인은 한국노인과는 달리 자기효능만이 삶의 질에 대하여 19%의 예측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노인은 삶의 질에 대한 귀속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이 확인되어 내재성, 안정성, 통제가능성의 차원을 모두 지닌 반면에, 미국이민 한국노인은 자기효능만이 관련되어 통제가능성 차원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양국 노인의 삶의 질 귀속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노인들의 주거환경에 따른 문화적 차이로, 미국이민 한국노인 대부분이 이민역사 10년 이상으로 이미 많은 의식구조나 삶의 형태가 서구화 되어있어, 특히 노인부양 보험제도의 혜택으로 생존의 기본권이 보장되므로 자존감이 한국노인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두 집단 모두에게서 삶의 질에 대한 주요 귀속요인으로 확인된 자기효능은 심리적 귀속요인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Kempen & Sonderen, 2002)과 일치하였다. 즉 노인의 삶의 질 귀속요인으로 자기효능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Weiner(1985)는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실제의 생활영역에서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원인을 안정적, 내재적,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원인으로 돌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아울러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즉, 통제 가능한 차원으로서 자기효능이 높은 사람은 삶의 질의 높고 낮음을 운이나 환경 또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므로, 자기효능을 증진시킴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Weiner(1985)에 의해 제창된 귀속이론은 학습된 무

력감이론(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과 자기효능이론(Bandura, 1977)을 재조직한 것(Rees, Ingledew, & Hardy, 2003)으로서 자기효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선행연구(Hyun, 1992)에서 자기효능은 성취행동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을 치료하는 행동에서도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신뢰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었으며, Bandura(1977)는 자기효능의 인지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인지과정인 원인귀속의 형성에도 중요한 정보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귀속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자기효능은 귀속요인의 통제성 차원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기효능감 증진이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들의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한국노인에게만 확인된 자아존중감은 기초적 자아존중감과 기능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인생초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비교적 변하지 않는 토대에서 형성된 것이라 하였고, 후자는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기초적 자아존중감을 초월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변화된다고 주장하였다(Crouch & Straub, 1983). 이러한 견해는 자아존중감이 내재성 차원임과 동시에 안정성 차원에도 속한다고 한 주장(Major, Quinton, & Schmader, 2003)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내재성 차원은 변화가 어렵지만 안정성 차원은 가변적인 것이어서 변화가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동일한 성장배경을 지닌 한국노인이지만 현재 삶의 문화적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m(1999)의 연구에서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경우 이민생활에서 오는 문화적 변동과 생활조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가치관인 가족결속도와 효 의식에 큰 변화가 없으며, 특히 노인 복지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도 한국노인보다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생활 적응에서 필요한 자원이 많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 귀속요인으로 규명된 우울은 본 연구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삶에 질과 관련된 영향이 매우 적었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인 미국이민 한국노인과 한국노인 모두 우울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중재에는 우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속요인과 삶의 질 관계를 비교 문화적으로 파악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7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한국노인 163명, 미국에 이민 온 이후 10년이 경과된 노인 151명 총 314명의 설문 자료를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x²-test, ANCOVA,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교육정도, 월 용돈에서 차이가 있었다.
2.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삶의 질 및 그에 대한 귀속요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그리고 삶의 질은 미국이민 한국노인이 한국노인에 비해 더 높았으며, 우울은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
3. 한국노인과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삶의 질 귀속요인은 자기효능감이며, 자아존중감은 한국노인에게만 확인되었다.

노인을 위한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령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저하는 물론 심리,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불편함을 해소하여, 자신의 삶 자체를 보람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인간다운 인생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이는 곧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노인에게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고취를, 미국이민 한국노인에게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Abramson, L. Y., Seligman, M. E. P.,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Andrews, M. M., & Boyle, T. J. (2003). *Transcultural Concepts in Nursing Care*. Philadelphia: Lippincott.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Chisholm, R. M. (1981). *The first person: an essay on reference and intentionality*.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Crouch, M. A., & Straub, V. (1983). Enhancement of self-esteem in adults. *Family and Community Health, 6*(2), 76-78.
- Jun, J. Y., Kim, S. A., Park, W. S., Oh, M. K., & Hong, Y. M. (2001). The assessment of rural elderly's health status by SF-36. *Kwandong Medical Journal, 5*(1), 93-101.
- Hyun, J. H. (1992).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reschooler's efficacy predictions and causal attributions. *Korean J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1), 177-190.
- Kee, B. S. (1996).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5*(2), 298-305.
- Kempen, G. I. J. M., Van Heuvelen, M. J. G., Van Sonderen, E., Van Den Brink, R. H. S., Kooijman, A. C., & Ormel, J. (1999). The relationship of functional limitations to disa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attributes in community-dwelling older persons. *Social Science & Medicine, 48*, 1161-1172.
- Kempen, G. I. J. M., & Van Sonderen, E. (2002). Psychological attributes and changes in disability among low-functioning older persons: Does attrition affect the outcomes? *J of clinical Epidemiology, 55*, 224-229.
- Kim, S. K. (2004). A study for raising the quality of the rural old aged men's lives. *J of Welfare for the Aged, 23*, 179-202.
- Kim, S. O. (1990). On the attribution theory. *Korean J of Sport Psychology, 1*(2), 3-12.
- Kim, T. H. (1999). Cross-cultural study on family solidarity, filial piety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J of The Korea Geronto Society, 19*(2), 79-96.
- KNSO (2003).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http://.nso.go.kr*
- Ko, S. D., & Joe, S. H. (1997).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J The Korea Geronto Society, 17*(2), 17-36.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ajor, B., Quinton. W. J., & Schmader, T. (2003).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Impact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ituational ambiguity. *J of Experi Soci Psycho., 39*, 220-231.
- Polite, D. F., & Hungler, B. P. (1987). *Nursing research : principles and methods(3rd ed.)*. Philadelphia: Lippincott.
- Ranzijn, R., Keeves, J., Luszcz, M., & Feather, N. T. (1998). The role of self-perceived usefulness and competence in the self-esteem of elderly adults :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of the Bachman revision of Rosenberg's self-esteem scale. *J of Geronto, 53*(2), 96-104.
- Rees, T., Ingledew, D. K., & Hardy, L. (2003). Attribution in sport psychology: seeking congruence betwee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sychology of Sport & Exercise, 20*, 1-17.
- Ro, Y. J., & Kim, C. G. (1995). Comparisons of physical fitness, self efficacy,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between institutionalized and noninstitutionalized elderly. *J Korean Acad Nurs, 25*(2), 259-27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ikh, J. I., & Yesavage, J. A. (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In : Brink, T. L., ed. *Clinical Gerontology ; A Guide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 The Harwoth Press.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ohng, K. Y., Cho, O. H., Moon, J. S., & Chaung, S. K. (2000). A Comparative study on health promoting lifestyle pattern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between korean elderly and korean-american elderly. *J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4*(2), 355-371.
- Wares, J. E., & Sherbourne, C. D. (1993). The MOS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SF-36). In *Conceptual framework and item selection. Med Care, 30*(6), 474-483.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4), 548-573.

- Abstract -

Attributions to Quality of Life Between Kore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Kim, Kwuy Bun**

Purpose: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and compare attributes of the quality of life between Korean elderly and Korean-American elderly. **Method:**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design and questionnaires were used. Studies were done using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convenient sample of 163 Korean elderly and 151 Korean-American elderly recruited from senior centers and church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WIN 10.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n elderly and Korean-American elderly in education and income. Korean-American elderly showed higher self-esteem,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than those of Korean elderly. The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in Korean elderly were defined a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And the influencing factor on quality of life in Korean-American elderly was defined as self-efficacy.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elf-efficacy was a very important factor as attribution to the quality of life for both elderly group. Therefore, self-efficacy should be promoted in nursing intervention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both Kore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Key words : Attributions, Quality of Life,
Cross-Cultural study, Older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